



■ SK에너지, “사업·기술·조직문화, 3대 혁신으로 재도약”

“Business·Technology·Culture, 3대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재도약 하겠습니다”

SK에너지 구자영 사장은 지난 6월 20일 SK에너지의 R&D(연구개발)의 산실인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SK에너지 기술원에서 미래 성장 전략과 그린 에너지 개발 현황을 설명했다.

구자영 사장은 “산유국의 정유·화학 생산 허브 전략, 세계 수요 회복 지연, 글로벌 친환경 정책 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담보 할 수 없는 대변혁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SK에너지는 사업·기술·조직 문화의 3대 혁신으로 글로벌 선도 에너지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사장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그린 폴 등 미래 그린에너지 제품을 현장에서 공개한 후, 2시간여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했다.

■ 2분기 매출 11조 3,036억원, 영업이익 5,808억원

SK에너지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경질유 제품의 수출증대 및 석유개발 사업의 실적호조 등에 힘입어 직전 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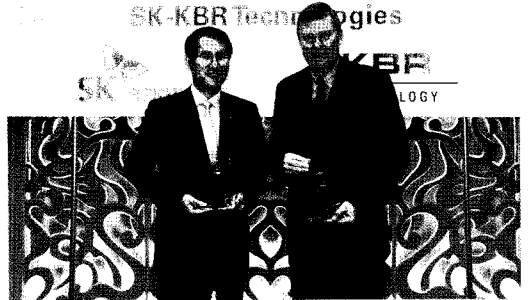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지난 7월23일 오전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10년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11조 3,036억원의 매출액과 5,8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62% 증가한 수치이다. 순이익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3,621억원을 기록했다.

■ 합작회사 설립으로 기술수출 가속화

SK에너지는 지난 6월30일 싱가포르에서 김동섭 SK에너지 기술원장, 티모시 칼랜드 美KBR(Kellogg Brown & Root)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 및 마케팅

Signing of Shareholders' Agreement SK-KBR Technologies



전문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SK에너지와 KBR사가 각각 50대 50의 지분참여로 새롭게 출범하는 'SK-KBR 테크놀로지'는 화학공정 분야의 기술을 수출하는 전문회사로, SK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세계 수준의 기술을 KBR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석유화학 업체에 판매하게 된다.

이날 계약식에 참석한 김동섭 SK에너지 기술원장은 “이번 합작사 설립은 SK에너지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으며, SK에너지의 각종 기술이 글로벌 선도기업인 KBR사의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 역량과 결합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SK에너지의 기술 수출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Vitol사와 ETT 지분투자·Trading 협력 계약 체결

SK에너지는 지난 7월5일 비틀사의 런던사무소에서 SK에너지 R&M 유정준 사장이 윤사호 R&M Global사업본부장, SKT 이성윤 대표 등과 함께 비틀사의 이안 테일러 사장 등 비틀사 관계자들을 만나 ETT(European Tank Terminal) 지분 투자와 터미널 운영, 트레이딩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ETT는 SK에너지와 유럽항 수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비틀사가 유럽 석유제품 트레이딩의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건설하고 운영중인 유류피안 탱크 터미널이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유정준 사장은 “이번 계약은 터미널 지분 투자에 터미널 운영과 트레이딩에 대한 협력이 결합

된 공동사업으로, SK에너지와 비틀社 간의 협력 집약체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아·태 지역에서 생산과 Outlet을 보유한 SK에너지 시스템의 강점과 유럽·아프리카·미주 등지에서 비틀社가 보유한 글로벌 마케팅 강점이 결합해 양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

SK에너지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일반산업단지내 7만평(23만 1천㎡) 부지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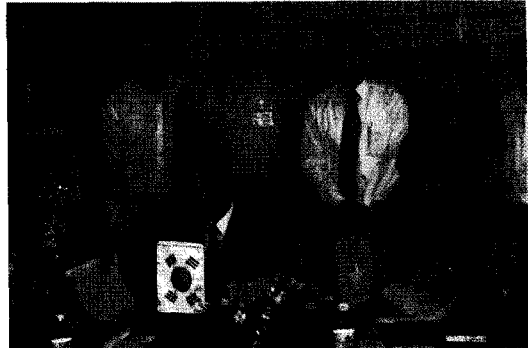
SK에너지는 26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구자영 SK에너지 사장,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유상곤 서산시장, 이사구 계룡건설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및 서산시와 SK에너지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SK에너지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서산시의 서산일반산업단지내 1차로 확보한 부지에 500MWh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500MWh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약 5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대전에 위치한 SK에너지 기술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고 수요자 접근성, 기술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산 일반산업단지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며, "미래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베트남 최초의 석유화학공장 대한민국 기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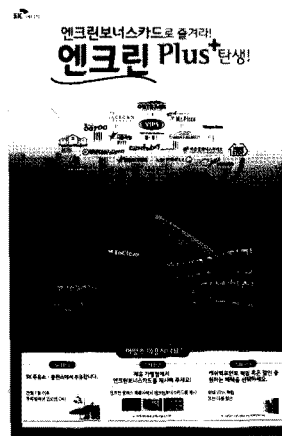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지난 7월30일, 베트남 중부 팜아이에 위치한 Petrosetco Hotel에서 SK에너지 정태민 기술사업부장과 성학용 BSR(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 Co. Ltd) 운영본부장, 베트남 BSR사 Mr. Truong Van Tuyen 회장(초영 반 뚜옌)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SR의 신규 합성수지 공장에 대한 공장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식을 가졌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9월 베트남 BSR사와 체결한 최초의 정유 공장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에 이은 추가적인 수주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운영 노하우를 SK에너지가 제공하게 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지난 10개월 동안 베트남 최초의 정유 공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서비스에 만족한 BSR사가 글로벌 우수 기업을 가운데 SK에너지에 단독으로 화학공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요청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의미를 밝혔다.

■ 똑똑한 적립, 알뜰한 할인혜택 「엔크린 Plus+」 출시 기념 '왕대박 대잔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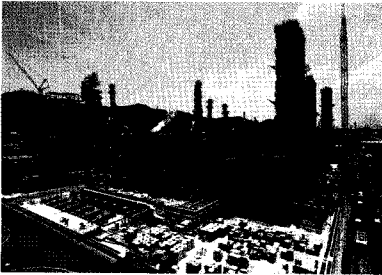


SK에너지가 9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5,200여개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엔크린 Plus+ 왕대박 대잔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일 새롭게 출시된 엔크린 Plus+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진행되는 것으로 행사기간에 5만원 이상 주유 고객(충전소 3만원 이상)에게 고급티슈와 라면

세트, 엔크린닷컴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D TV, 갤럭시S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GS칼텍스, 김압진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RHCR) 완공



GS칼텍스가 2007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3번째 고도화설비인 김압진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VRHCR : Vacuum residue Hydrocracker)의 기계적 준공 (Mechanical

Completion)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9월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김압진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은 총 투자비 2조 6천억원, 부지면적 615,000㎡(약 18만6천평), 공사기간 21개월이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GS칼텍스 창사 이래 최대규모는 물론 국내 석유업계에서도 단일 규모로는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이 설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설비이며 세계적으로도 7번째 적용되는 최첨단 기술이다.

GS칼텍스는 이 설비 완공에 따라 고도화처리능력이 기존 일일 15만 5천배럴에서 21만 5천배럴로 늘어 국내 최대규모로 올라서게 되며 고도화비율 역시 기존 20.7%에서 28.7%로 늘어나 국내 최대의 고도화비율을 갖추게 된다.

GS칼텍스 허동수회장은 "이번 투자는 변화하는 석유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아시아에서 배럴당 수익성이 가장 높은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량 해외로 수출되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0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참가

GS칼텍스는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2010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 참가하였다.

이번 산업전에 GS칼텍스는 신에너지 사업 제품(연료전지·박막전지·EDLC용 탄소소재)의 인지도 향상과 수요

처 개발을 위해 참가하게 되었다. GS칼텍스 전시 부스에는 약 600여 명의 관람객 및 관련 업체 담당자가 방문하여 GS칼텍스의 전시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일부 업체는 제품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GS퓨얼셀·GS노텍 ISO 9001 인증

GS퓨얼셀과 GS노텍은 지난 6월1일 독일의 표준인증기관인 TÜV SÜD Group으로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다. 두 회사는 이번 ISO 9001 인증을 통해 경영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생산 공정의 표준화를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지성 유소년축구센터 준공식 참석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수원에서 펼쳐진 박지성 유소년축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박지성 유소년축구센터 메인 스폰서를 맡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허동수 회장은 박지성 선수 및 정몽준 FIFA 부회장,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 그리고 2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축구센터의 준공을 축하했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박지성 축구 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축구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을 심어주길 기대한다"면서 "GS칼텍스도 국민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 삼성에니카와 윤활유 공급 계약 체결

GS칼텍스는 지난 6월 24일 국내 최대 자동차 손해사정업체인 삼성에니카 자동차 손해 사정 서비스 주식회사와 윤활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윤활유 공급계약 체결로 GS칼텍스는 엔진오일 판매에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삼성 에니카 가맹점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Kixx 엔진오일을 포함한 우수한 품질의 윤활유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2010년 임금협약 위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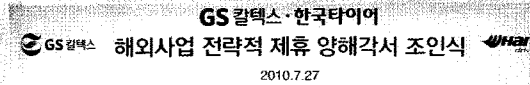
지난 7월 14일 여수공장 임원회의실에서 생산본부장 전상호 사장과 김국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임금협약 위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GS칼텍스 노사는 VHCR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와 신성장 사업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6년연속 무교섭 임금 위임에 합의했다.

■ 한국타이어와 해외사업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

GS칼텍스는 지난 7월 27일 국내 최대 타이어회사인 한국타이어와 해외사업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사는 해외사업에 있어 윤활유 및 타이어 유통구조의 유사성과 마케팅의 공유 가능성을 전제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윤활유인도법인의 출범과 함께 윤활유 해외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ADNOC 유세프 총재 일행 여수공장 방문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8월 5일 여수공장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의 유세프 오마르 빈 유세프 (Yousef Omais Bin Yousef) 총재 일행을 접견하였다.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전상호 생산본부장 등 여수공장 임원들이 함께한 이번 접견에서, 유세프 총재 일행은 GS칼텍스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양사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GS칼텍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은 후 제1공장과 2공장을 차례로 둘러본 유세프 총재는 GS칼텍스의 고도화 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다.



■ S-OIL, 남자 실업탁구단 창단



S-OIL이 남자 실업탁구 제6구단을 창단했다. S-OIL은 탁구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창단식을 열고 'S-OIL 탁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에스-오일이 운영하는 스포츠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창단식은 탁구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OIL 탁구단 공식 마스코트인 'S-깨비'의 등장을 시작으로 선수와 코칭스태프 소개, 구단주인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S-OIL CEO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수베이 구단주는 축사를 통해 "S-OIL탁구단이 명문구단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한국 탁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OIL 챔피언스 클럽" 주유·충전소 시상

S-OIL은 지난 7월 1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10년 S-OIL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경영성적을 낸 주유소와 충전소들을 격려했다.

고객서비스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시흥버스터미널 주유소(대표 : 권석재)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별, 운영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50개 주유소 및 충전소가 "에스-오일 챔피언스 클럽"으로 선정됐다. 챔피언스 클럽에 선정된 주유소와 충전소에게는 '챔피언스 클럽' 트로피와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S-OIL 수베이 CEO는 이날 시상식에서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주유소 운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신 주유소 운영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S-OIL이 장기적으로 주유소 운영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3억원 지원



S-OIL은 지난 7월 28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소방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소방관 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S-OIL은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 중 순직하거나 장애를 얻어 퇴직한 소방관 자녀 100명에게 교육비로 각 3백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S-OIL 수베이 CEO는 "S-OIL의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작은 정성이 소방관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격려와 위안이 되고, 어린 소방가족

들이 더욱 원대한 희망을 갖고 사회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S-OIL은 앞으로도 소방가족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소방관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방관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 휘발유·경유, 3회 연속 환경품질등급 최고등급 획득

올해 상반기 환경부의 수도권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에서 S-OIL 휘발유와 경유가 동시에 세계 최고수준(★5개, 국제 최고규격 수준)을 획득했다. 특히 S-OIL은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2009년 상반기부터 3회 연속으로 휘발유·경유 모두 최고수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유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가 시행된 2006년 상반기 이후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S-OIL 2010 환경보고서 발간



S-OIL은 최근 '2010 환경보고서'(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 2008년부터 해마다 발행해 온 환경보고서는 환경성과와 향후 투자계획, 환경 관련 신규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는 신규 통합·제정된 경영방침을 비롯해 전사리스크관리(ERM), 환경성과평가(EPE) 등 신규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환경경영 시스템의 주요 보조지표인 환경성과평가(EPE) 시스템의 평가결과와 환경보고서 내용 전반을 ISO 경영시스템 주요 분야의 국내 제1호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KFQ)에 의뢰해 검증받음으로써 한층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 해상오염 방제 모의훈련

S-OIL 온산공장은 지난 8월 19일 해상오염 방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원유하역을 위한 해상계류시설(SPM) 지역의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이날 훈련은 원유하역 작업 도중 원유선과 SPM 연결부위가 파손돼 원유가 해상으로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원유누출에 따른 오일펜스 설치 등 초동 방제작업과 해양환경 경관리공단, 예인선사 등이 공동으로 펼쳐는 방제작업 전과정의 도상 모의훈련이 진행되었고, 방제인력 100여명을 비롯해 방제선 2척, 예인선 3척, 순찰선 3척, 오일펜스, 오일스키머 등이 대거 투입됐다.

방제 모의훈련은 오염사고 발생시 해양환경 파괴와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대비책이다.

■ 어린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키미 현장으로



S-OIL은 저소득 결손가정 어린이와 자원봉사자 1백여 명을 초청하여 강원도 일원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생태캠프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강원도 철원 자연생태학교, 화천 토고미 생태학교, 경기도 청평 국립내수면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두루미·수달·어름치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문화·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S-OIL 관계자는 "외롭게 방학을 보내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 외에도 DMZ와 제2땅굴 탐방, 수달과 민물고기 관찰, 풀잎공예, 산천어잡기 등 흥미로운 야외활동을 통해 유익한 체험을 하도록 생태캠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중 받고 보상받는 회사 만들 것



현대오일뱅크 신임 권오갑 사장, 첫 출근과 함께 직원들에게 이메일 보내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고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권오갑 사장(사진)은 지난 8월 16일, 사내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CEO로서 첫 인사

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현대오일뱅크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임 권오갑 사장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세계 최고의 종합중공업 회사인 현대중공업 가족 일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와 함께 힘을 모아 현대오일뱅크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권 사장은 “누구보다 자신은 일을 좋아하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며 “항상 공정하고, 최고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직원 모두에게 존경 받는 경영자가 되겠다”라며 취임 첫 포부를 피력했다.

지난 8월 11일 취임한 권 사장은 취임 첫날, 충남 대산공장 본사와 지역본부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방문



현대중공업의 CEO와 주요경영진이 현대오일뱅크 인수 이후 처음으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했다.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과 이재성 사장 등은 지난 8월 23일(월) 오전 대산공장을 방문,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의 안내로 기존 정유설비 현황을 둘러본 데 이어 증설 중인 고도화설비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최고 경영진의 대산공장 방문은 기존 시설 및 증설 현황을 점검하는 것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 환경사랑 UCC·디카사진 공모 수상작 발표

현대오일뱅크는 유네프(UNEP)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자연사랑·문화재사랑 UCC 공모전과 Eco Star Photo 공모전에서 대상 2작품을 포함해 모두 32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공모전에는 UCC 영상 작품이 79편, 사진 작품은 1400여 편이 참가했다.

이 공모전에서는 대상 2편 이외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각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200만원을 비롯해 모두 1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상장 및 신평이 수여된다.

두 공모전의 작품 심사를 진행한 유네프한국위원회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개인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다”며 “자연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잘 전달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수상작 선정 기준을 밝혔다.

중설 협력업체 안전교육 4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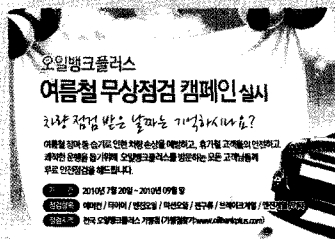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가 증설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본사 홍보관에서 진행됐으며, 유한기술, 서림종합건설 등 12개 증설 협력업체 근로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다. 사내강사로 나선 환경안전팀 김봉수 차장은 안전보건 11대 기본 수칙을 비롯해 화기작업 안전대책, 장마철 전기 안전 대책 등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을 전수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오일뱅크 플러스 여름철 무상점검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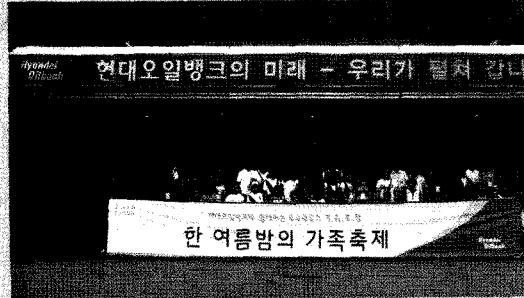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 전국 오일뱅크플러스 가맹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7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무상점검은 여름철 장마 등 습기로 인한 차량 손상을 예방하고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무상점검 항목은 에어컨, 타이어, 엔진오일 등이며 무상점검을 받는 고객 모두에게 최고급 합성오일 할인 교환권과 영화 다운로드 무료쿠폰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일뱅크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주유소 120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축제

현대오일뱅크가 전국 38개 우수주유소 가족 120여명을 초대해 특별한 여름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

'한 여름 밤의 가족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6·17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유소 가족들이 대신 공장을 견학하고 태안 바닷가에서 갯벌체험을 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신 공장을 방문한 주유소 가족들은 완성된 제품이 주유소에 도착하기까지 공장에서 이뤄지는 원유 정제 및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예쁜 아빠 뽑기' 선발대회를 개최 주유소 경영자들이 직접 여장을 하고 나타나 가족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온라인 소통 강화 '기세당당' 블로그 오픈



현대오일뱅크가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기름진 세상의 당당한 이야기(약칭 '기세당당')' 블로그를 오픈했다.

지난 8월 31일 문을 연 '기세당당(www.oilbankblog.com)' 블로그는 정유산업과 석유제품의 특성, 사업내용 등을 알리는 '유(油)중진담', 정유회사 근무자들의 회사 생활 이야기를 담은 '유(油)과장의 직딩 다이어리', 회사 채용 소식을 담은 '채용 플라자', 전국의 차별화된 주유소와 그 주변 명소를 알려주는 '주유소 무한도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는 블로그 오픈을 기념하여 지난 9월 12일까지 이웃 댓기를 신청하거나 블로그 오픈 소식을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한 네티즌을 추천해 주유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기세당당 블로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